

# 부모교육경험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Parent Education Program on Parent's Educational Views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최 미 경  
부 교수 박 성 연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tudent: Choi, Mi Kyung  
Associate Professor: Park, Seong Yeon

## 목 차

I. 서론	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I.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문제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parent's educational views according to sex, age, educational level of parent, and social class. The study also examined parent's educational views resulting from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and the types of parent education of marital partner.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162 couples(324 persons) whose children were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instrument was "A tools of Parent's Educational Views Measurement".

The major findings are :

1. Parent's educational views showed a tendency to be adult oriented rather than child centered regardless of parent's sex and age. However, the higher parent's education and SES are, the more child oriented views are.
2. Moth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specialized parent education were found to be child oriented educational views.
3. The fathers whose wives participated in the specilized parent education showed the child oriented educational views, probably because of mothers' influence on fathers' educational views.

## I. 서 론

가정환경은 아동이 출생후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환경으로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인간의 초기경험을 이루는 생활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환경은 부모가 주축이 되어 형성되며 부모는 아동의 최초의 교사로서 아동 초기 경험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Susan, 1971).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해 야기된 사회의 변화는 가족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핵가족으로부터 핵가족으로의 변화와 함께 핵가족내에서의 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가정내에서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핵가족내에서의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으나, 지나친 교육열을 조장하여 과열과 외 현상과 같은 역기능 또한 초래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국민학교 아동들 사이에 과열과외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방법은 지식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목적에는 성공할는지 모르나 인간교육, 정서교육,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로, 이와같은 현상을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이나 특성에 관한 이해없이,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채, 친정부모나, 시부모, 친구 등 주위에서부터 들어온 갖가지 교육방법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려 하기때문에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85)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요구 분석"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머니들은 주로 과거의 학교교육, 시부모나 친정부모, 육아법에 관한 전문도서에서 가장 크게 의존하여 자녀를 교육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도서들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방법 적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이론들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이기숙, 1985). 그러므로 여러가지 이론을 배경으로 한 전문가의 다양한 제언은 부모를 더욱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부모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우선 근본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부모교육 실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검증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전반적인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교육관의 경향을 살펴보고,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우리나라 부모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A. 자녀교육관

자녀교육관이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며 견해(박준희, 1975; 이원영, 1983 a)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해 부모들이 가진 이러한 가치체계는 부모-자녀간의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패턴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즉 부모가 지닌 교육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감, 가치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이 달라지고(이영애, 1973; Dave, 1963) 이에 따라 아동의 자아발달에 영향을 끼친다(Stabernau, 1973).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교육관과 부모의 태도 및 행동이 아동교육과 아동발달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며, 효과적인 아동교육과 발달을 초래하기 위해서 부모의 바람직한 가치관, 태도, 행동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1. 자녀교육관의 개념 : 아동중심적 교육관과 성인중심적 교육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자녀교육관은 아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크게 변화하여 왔으며, 그러한 관점에 따라 한 인간의 인격 및 발달이 다르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아동은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미성숙한 존재, 축소된 어른으로 여겨져 왔다. 즉, 아동나름대로의 사고체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성인의 가치기준만이 옳기 때문에 아동들은 이에 따라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Herron과 Sutton-Smith, 1971).

그러다 17세기이후 아동들도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철학적 사고가 짝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교육의 시발점을 아동에게 두고 아동에게 활동의 주도권을 주는 교육철학을 “아동중심적 교육관”이라고 하고(Smith, 1980), 그 반대되는 입장을 “성인중심적 교육관”이라고 한다(Wolfgang, 1977).

아동중심적 교육관과 성인중심적 교육관은 인간관이나 교육목표, 교육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이원영, 1983a).

먼저 인간관에 있어서, 아동중심적 교육관은 아동을 출생시부터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성인중심적 교육관은 아동을 학습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인간, 즉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 교육 목표에 있어서, 아동중심적 교육관은 그 목표를 인간의 자아실현이나 능력 및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에 두고 있는 반면에 성인중심적 교육관은 지식이나 특수능력의 소유에 두고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둔 교육방법은 교육 과정과 아동의 자유 그리고 솔선성을 중요시여겨 교사는 후원자나 계발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에 성인중심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둔 교육방법은 아동의 외형적인 행동의 평가와 교육의 결과를 중요시여겨 교사로 하여금 지도자나 형성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결국, 아동중심적 교육관은 아동을 출생시부터 능력이 있는 인간으로 보고 아동의 능력 및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게 하고자 성인의 지도보다는 아동의 자유와 솔선을 중요시 여기며 아동 개개인의 발달속도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인중심적 교육관은 아동을 학습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인간으로 보고 아동으로 하여금 지식이나 특수능력을 습득하도록 아동의 외형적인 행동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성인이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육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교육관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보아 우리나라에도 성인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기존 가치관을 전달하려는 성인중심적 입장과 교육의 시작과 중심을 아동으로 보고 교육하려는 아동중심적 입장이 존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불교, 유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문화 및 가치관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원리에 의해 교육관도 영향받았다(정순목, 1976). 불교의 가르침은 아동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아동중심적 접근방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조 오백년 동안 정신적 근거를 제공하였던 유교는 근세 우리나라 성인들의 교육관을 성인중심적 접근방식으로 기울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이원영, 1983a에서 재인용). 즉, 유교사회에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심적 예절(禮節)인 효(孝)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가족내에서 가장에 대한 절대복종, 부모공양, 그리고 부모세대인 모든 어른들에게 공손히 대함으로써 자녀의 사회규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조옥라, 1985). 이와같은 경로사상(敬老思想)과 장유유서(長幼有序)사상은 매사를 나이로서 선후고하(先後高下)를 찾으려는 폐단을 만들었고 그 결과 유교사회에서 아동은 그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다(김점숙, 1987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구한말에 일어났던 동학은 아동이 어른의 소유물이 아님을 강조했으며,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한 아동중심적 교육관은 3·1운동 이후 우리나라 교육운동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운동을 이끌었던 소춘 김기전과 소파 방정환은 인내천(人乃天) 또는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에 기초하여 아동을 교육의 시작으로 보았다(손인수, 1980).

이와같이 이조와 구한말 시대를 지나면서 성인중심적 교육관과 아동중심적 교육관이 존재해 왔던 우

리나라는 8·15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는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겪으면서, 60년대 부터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공업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추진된 공업화는 물질 결핍 환경에서 자란 부모세대에게 물질 제일주의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고, 인구 과잉으로 인한 경쟁의식을 가중화시켰다(이동원, 1985). 그리하여 부모는 자식에게 물질적인 과보호를 베풀게 되었고, 사회적 상승을 위해 입시 경쟁에서 이길 것을 강요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 가족구조는 부부 중심 가족과 유사한 핵가족화 경향이 나타나지만 내면적으로는 부계 혈연을 중심으로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운명론적인 혈연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으로써,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식은 약했다. 반면에 가족규모의 소규모화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보호 의존적인 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이와같은 부모의 과보호와 경쟁지향은 결과적으로 자녀의 충동적인 욕구 성향을 북돋웠으며 자기 중심주의적인 편의주의 사상을 낳게 했다(이동원, 1985).

1963년부터 1973년까지 만 10년동안 한국인의 교육관을 밝히기 위해 연구한 박준희(1975)의 연구 결과는 이와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박준희(1975)는 그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해 뚜렷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채 개인주의, 현실주의, 가족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했으며, 이렇게 교육관의 혼돈이 초래된 원인은 무교(舞敎)적 전통, 계층성이 강한 언어, 다양한 외래종교, 정치적 기복에 있다고 하였다.

이원영(1983)의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의 교육관은 전체적으로 성인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계몽운동 연구소(1988)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던 경향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과거 우리나라에는 성인중심적인 교육관과 아동중심적인 교육관이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모두 존재해 왔으나, 60년대의 급격한 공업화와 더불어 초래된 물질 제일주의, 경쟁의식 팽배, 과보호는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혼란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교육관의 확립은 아직 과도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가 아동교육 및 발달을 위한 보다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B. 부모교육

### 1. 부모교육의 개념

부모교육(Parent Education)은 부모훈련(Parent Training), 부모참여(Parent Participation), 부모관여(Parent Involvement)란 용어와 함께 확실한 구분없이 혼용, 사용되고 있다.

Stevens는 부모관여와 부모교육을 포괄적인 개념과 실천방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즉, 부모관여란 조기교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천, 평가, 수정 등 모든 주요단계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으로 특히 부모의 결정(Decision Making)권한이 강조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부모교육은 부모관여, 부모참여를 위한 전략으로서 부모역할기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Evans, 1975에서 재인용). 또한 Grotberg(1983)는 부모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부모교육, 부모참여, 부모지지(Parent Support)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역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며, 부모참여는 부모가 가족 생활에 영향을 주는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고, 부모지지는 친지로부터의 도움을 위시하여 교회, 병원, 교육기관, 기업체, 기타 사회사업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지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개념은 협의의 의미로, 부모가 효과적인 아동교육 및 발달에 보다 적극 참여하기 위해 부모교육자-전문가 또는 비전문가-로부터

교육받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광의의 의미로, 부모와 교사가 동반자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유대관계와 연결을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동교육 및 발달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유아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어머니 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Fröbel이며, 그의 영향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원영, 1983b). Fröbel이 만든 가정에서 어머니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노래와 손유희가 담긴 책 “어머니와 아기의 노래”는 우리나라의 초기 이화여자전문학교 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모성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이기숙, 1985).

1914년 선교사 Brownlee가 우리나라에 유치원을 세워 유아교육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1915년부터 자모회를 조직함으로써 그 후 유치원에는 자모회를 두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자모회라는 것은 해방이후 부모회로 바뀌게 되었고, 1946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에 “부모교육”이라는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여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부모교육은 현재 거의 전공과목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시 되고 있다(이기숙, 1985). 그러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부모교육에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여성단체를 통한 여성의 사회교육 내용에도 부모교육이 많이 강조되고, 대중 여성잡지나 T. V. 등 전파매체에서도 부모교육의 내용을 많이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 전문단체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행동과학연구소에 의해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이라는 잡지가 출판되면서부터, 그 후 많은 출판사들이 유아를 위한 책, 교재 및 놀이감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들이 유아 교육의 중요성, 부모역할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침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된 부모참여 및 교육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아져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

던 강연회, 면담, 참관, 가정통신 등의 소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놀이감 교환 및 대역 프로그램,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가정방문 프로그램, 교사보조자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부모역할 훈련(P. E. T.) 등의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대두하게 되었다(이기숙, 1985).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부모교육이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증가와 더불어 아직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즉 첫째,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는 아직도 많은 수가 강의나 강연 위주의 소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적극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장기적이지 못하고 기능적이며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로 중류계층의 가정이며,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세째, 현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역할 및 교육적 기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된 어머니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부모교육이라고 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네째, 지역사회의 기관 및 자원, 즉 매스미디어, 교회, 병원, 각종 단체와 모임, 기업체 등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인식과 계몽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부모교육에 대한 정리 연구가 시급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이기숙, 198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여러가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극적인 부모교육 실시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이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인 계획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C.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관을 아동중심적인 것과 성인중심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가 매우 드물어, 전반적인 자녀교육관을 다음과 같이 부모의 연령이나 사회계층, 교육정도, 직업 또는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직접 연관시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 1. 연령 및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녀교육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조사한 관련 연구들(이교영, 1977; 이원영, 1983a)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어, 부모의 연령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을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조사한 연구들(이원영, 1983a; 이정희, 1985)은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할수록 어머니가 아동중심적인 교육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2.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따른 효과

부모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이 아동과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일이다. 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교육을 받은 집단의 부모들이 받지않은 집단의 부모들보다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자극을 많이 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연구(Dickie, & Gerber, 1980; Metz, 1980)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바람직하게 변화되었다는 연구들(박영충, 1985; 박찬수, 1985)도 보고되었다. 이밖에도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부모자신의 변화를

보고한 연구결과들(박혜정, 1985; 이상금, 이은화, 이기숙, 1980; 최옥순, 1984; Lally & Honing, 1977; Lane, Elzey & Lewis, 1971)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과 태도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 부모자신의 변화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는 목표아동이나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수평적 파급효과(Horizontal diffusion effect)가 있어 전체가족의 상호작용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Boger, Kuipers, Cunningham과 Andrew(1974)는 부모참여 효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상주변의 가족, 가정환경 및 친구, 이웃, 지역사회,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에 이르기까지 수평적 파급의 효과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부모교육 참여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밝힌 연구나 그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그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III.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모의 성,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배우자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4.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IV. 연구방법

####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24)

변인	성 별	아버지	어머니
	분 포	빈도(%)	빈도(%)
연 령	30~34세	11( 6.8)	65(40.2)
	35~39세	50(30.9)	68(44.9)
	40~49세	73(45.1)	26(16.1)
	45~49세	28(17.2)	3( 1.8)
교육정도	중학교 졸업 및 중퇴이하	16( 9.8)	35(21.6)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50(30.9)	56(34.6)
	대학교 중퇴 및 졸업	87(53.7)	71(43.8)
	대학원 이상	9( 5.5)	-
직업형태	무직, 가정주부	2( 1.2)	117(72.2)
	행상, 수위, 청소부 등	7( 4.3)	14( 8.7)
	피고용기술자, 서비스직종사자	32(19.7)	9( 5.6)
	자영상공인, 일반업무종사자	12( 7.4)	6( 3.7)
	일반사무직, 보안업무종사자	5( 3.1)	-
	계장급이하의 공무원, 회사원	13( 8.1)	1( 0.6)
	기술직	31(19.1)	13( 8.1)
	관리직	44(27.2)	2( 1.2)
	전문직, 대기업주 등	16( 9.9)	-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전문적인 부모교육(부모역할훈련)	1 ( 0.6)	32(19.7)
	학교, 기관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10( 6.2)	36(22.0)
	참여하지 않음	151(93.2)	94(58.0)
합 계		162(100.0)	162(100.0)

변 인	분 포	빈도(%)
가계의 월평균소득	30-60만원	5(3.1)
	60-90만원	49(30.2)
	90-120만원	26(16.0)
	120-150만원	24(14.8)
	150-200만원	42(25.9)
	200만원 이상	16(9.9)
자녀수	1-2명	123(75.9)
	3명	35(21.6)
	4명 이상	4(2.5)
합 계		162(100.0)

동의 부모이다.

사회계층별로 연구대상을 고르게 표집하기 위해서 상, 중, 하류층 아동이 많이 다닌다고 여겨지는 국민 학교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모교육 즉 부모역할 훈련(P.E.T.)을 받은 부모들

을 한국 심리상담 연구소에 의뢰하여 소개받았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아동의 부모 258명(129쌍)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부모역할 훈련(P.E.T.)을 받은 부모 66명(33쌍), 따라서 총 324명(162쌍)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0~44세가 45.1%, 35~39세가 30.9%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35~39세가 41.9%, 30~34세가 40.2%로 30대가 82.1%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경우 중학교 졸업 및 중퇴 이하가 9.9%,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30.9%,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상이 59.2%로 분포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중학교 졸업 및 중퇴 이하가 21.6%,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34.6%,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상이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관리직이 27.7%, 피고용 기술자, 서비스 종사자가 19.7%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가 72.2%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의 월평균 소득에서는 90만원 이하가 33.3%, 120만원 이상이 50.6%로 나타나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았다.

자녀수는 1~2명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 B.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대상 부모의 사회계층 및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 그리고 부모의 자녀교육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써 구성되어 있다. 자녀교육관은 이원영(1983a)이 제작한 “자녀교육관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녀교육관 측정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학교 아동의 부모에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두 문항(15번, 16번)을 제외시켜 총 19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아동중심적으로 기울어 있는지, 또는 성인중심적으로 기울어있는지를 파악하게 되어있는 “자녀교육관 측정척도”는 5단계의 평정척도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성인중심적 교육관의 경향을 보이는 문항을 아주 찬성할 경우에는 1점을 주고 찬성하는 편일 때는 2점을 주었으며, 아동중심적 교

육관의 경향을 보이는 문항을 아주 찬성할 경우에는 5점을 주고 찬성하는 편일 때는 4점을 주었으며 중간입장을 표했을 때는 3점을 주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로 산출하였는데, 전체 신뢰도는  $\alpha = .92$ 로서 높게 나타났다.

## C. 자료의 수집절차 및 분석

예비조사는 1990년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시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의 학부모 100명(5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서울시 K S동에 살고 있는 국민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질문지를 2부씩 배부하였으며, 부모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하기를 부탁하였고, 배부후 5~6일 사이에 다시 회수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민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문항은 제외시켜 본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서울시 소재의 4개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국민학교 아동의 학부모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부모역할 훈련(P.E.T.)을 받은, 국민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에게 배부하고 다시 학생들을 통해 회수하였으며, 부모역할 훈련을 받은 부모들은 한국 심리상담 연구소에 의뢰하여 주소를 얻은 후 질문지, 회신용 봉투, 그리고 우표를 우편으로 보내어 응답을 기입하게 하는 우송조사법(mail survey)으로 실시하였다. 학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배부한 질문지는 284부(142쌍)가 회수되었고(회수율 84%), 배우자 중 한사람이라도 부모역할 훈련에 참여한 부모에게 배부한 질문지는 우송조사를 하여 88부(44쌍)가 회수되었다(회수율 34%). 그리하여 질문지는 총 372부(181쌍)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62%) 그 중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은 것과 부적절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총 324부(162쌍)만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를 위해서, paired-t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 L M,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문제들의 유의도는  $P=.05$  이하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V. 결과 및 해석

### A. 자녀교육관

1. 부모의 성,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과 자녀교육관

<연구문제 1> 부모의 성,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교육관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1) 부모 각각의 자녀교육관 점수의 평균을 알아보고, 부모의 성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 어머니 자녀교육관 점수의 평균은 각각 아버지(52.74) 어머니(52.81)로 성인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평균점수의 차

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이 전반적으로 성인중심적으로 나타났다는 김명수(198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교육관이 부모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자녀교육관의 평균점수를 살펴볼 때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성인중심적이며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교육관에 있어 부모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관을 25세이하부터 45세이상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원영(1983)의 연구와 또한 30세에서 45세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의 교육관에 관해 분석적 연구를 한 이교영(197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연령이 많고 적음은 자녀교육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중심적 교육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 부모의 성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paired-t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아버지와 어머니(N=162쌍)		
		$\bar{D}$	S.D	t
자녀교육관		-0.46	12.70	-0.46

<표 3> 부모의 연령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t검증

독립변인 (연령)	종속변인	자녀교육관							
		아버지(N=162)				어머니(N=162)			
		N	$\bar{X}$	S.D	t	N	$\bar{X}$	S.D	t
30대		61	51.44	14.64	-0.85	133	52.87	16.67	-0.31
40대		101	53.48	14.25		29	53.78	13.28	

이를 검토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이 성인중심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이 전체적으로 성인중심적이었다는 이원영(1983), 이정희(1985)의 연

\* 부모의 자녀교육관 측정척도는 5점 척도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의 분포는 19-95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점수의 중앙값인 57점을 기준으로 하여 57점 이상을 아동중심적 교육관, 57점 미만을 성인중심적 교육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4〉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일원변량 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교육정도)	자녀 교육 관							
	아버지(N=162)				어머니(N=162)			
	N	$\bar{X}$	F	GROUP- NG	N	$\bar{X}$	F	GROUP- NG
중학교졸업및중퇴이하	16	43.68		B	35	40.85		C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50	42.50	*** 42.25	B	56	50.07	*** 25.38	B
대학교중퇴및졸업이상	96	59.58		A	71	60.97		A

\*\*\*P &lt; .001

3)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은 교육정도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교육관(F=42.25, P<.001)에서는 중학교 졸업 및 중퇴이하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 졸업 및 중퇴이하,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과 대학교 졸업 및 중퇴이상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단, 대학원 이상에 해당되는 아버지는 그 수가 적어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상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교육관(F=25.38, P<.001)에서는 중학교 졸업 및 중퇴이다.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대학교 중퇴 및 졸업이상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중심적인 교육관을 갖는다는 이원영(1983), 이정희(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국민학교 교육의 목적을 지식교육에 두는 성인중심적 교육관을 갖는다는 이교영(197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부모의 교육관과 부모의 성 및 연령이 관련성이 없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때, 이원영(1983, a)이 지적하였듯이 자녀교육에 대한 개념적 체계는 자연발생적이기 보다는 후천적 교육의 영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계층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표 5〉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은 사회계층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F=54.95, P<.001)에서는 사회계층의 상, 중, 하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F=22.45, P<.001)에서는 상류층과 하류층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상류층과 중류층간, 중류층과 하류층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갖고 있고,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성인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전문직에 종사해 상류층에 속하는 어머니들이 다른 계층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원영(1983), 이정희(198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같은 결과를 통해 사회계층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부모교육, 특히 하류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B.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와 자녀교육관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추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하고 부모교육의 효과만을 보기위하여 GLM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교육정도)	자녀 교육 관							
	아버지(N=162)				어머니(N=162)			
	N	$\bar{X}$	F	GROUPING	N	$\bar{X}$	F	GROUPING
중학교졸업및중퇴이하	16	43.68		B	35	40.85		C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50	42.50	*** 42.45	B	56	50.07	*** 25.38	B
대학교중퇴및졸업이상	96	59.58		A	71	60.97		A

\*\*\* P < .001

〈표 6〉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어머니 자녀교육관의 일원변량분석

(N=162)

종속변인 독립변인(부모교육 형태)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N	$\bar{X}$	F	GROUPING
부모역할훈련(P.E.T.)	32	72.87		A
학교, 기관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36	55.19	*** 60.39	B
참여하지 않음	94	45.22		C

\*\*\* P < .001

아버지의 경우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수가 모두 11명으로 참여하지 않은 아버지의 수, 151명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분석하지 않았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교육관(F=60.39, P<.001)은 부모역할 훈련, 학교,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참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문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은 어머니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만의 효과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GLM 검증을 통해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하고 부모교육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교육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은 유의한 차이(F=33.13, P<.001)가 있어 위의 결과와 일치했다. 즉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의 부모교육이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박영충(1985) 및 박혜경(1985)의 연구와 유치원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를 했으며, 아동과의 대화를 증진했고, 유치원 생활에 대한 이해와 유아교육 실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이상금, 이은화, 이기숙(1980)의 연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은 자녀관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이영애, 1973). 즉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아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게되고 이에따라 아동의 입장에서 생

\* 직업은 계층변수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변수이다(홍두승,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따라 사회계층을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연구대상자의 사회계층별 백분율은 상류층 37.0%, 중류층 35.8%, 하류층 27.2%였다.

\* GLM(General Linear Method: 일반선형모형) : GLM은 ANOVA와 유사한 분석방법으로서, ANOVA는 Data 변인의 각 항의 값이 다른 경우나 여러변인들 중 몇개의 변인을 통제한뒤 나머지 변인만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분석상에 문제가 따르지만, GLM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분석할 수 있는 ANOVA보다 더 폭넓은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백운동, 1987).

〈표 7〉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의 일원변량분석

(N=162)

독립변인(부모교육 형태)	종속변인			
	아버지의 자녀교육관			
	N	$\bar{X}$	F	GROUPING
부모역할훈련(P.E.T.)	32	72.61		A
학교, 기관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36	64.02	*** 30.83	B
참여하지 않음	94	41.91		C

\*\*\* P &lt; .001

각하게 되는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갖게 되어, 양육 태도 및 양육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C.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와 배우자의 자녀교육관

〈연구문제 3〉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배우자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 7〉과 같이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아버지의 자녀교육관( $F=30.83$ ,  $P<.001$ )은 부모역할훈련에 참여한 경우와, 학교

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서 제시한 바 있듯이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은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부모교육 효과 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GLM검증을 통해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한 후의 어머니의 부모교육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부모교육이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 $F=7.45$ ,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일치했다. 즉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을 통제한 후에도 어머니의 부모교육

〈표 8〉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N=162)

주요변인	1	2	3	4	5
1 아버지의 자녀교육관	1.00				
2 연령	.06	1.00			
3 아버지의 교육정도	*** .51	.10	1.00		
4 사회계층	*** -.62	-.11	-.73	1.00	
5 아버지의 부모교육참여 여부 및 참여형태	*** -.51	-.05	-.47	*** .59	1.00

\*\*\* P &lt; .001

〈표 9〉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N=162)

주요변인	1	2	3	4	5
1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1.00				
2 연령	.02	1.00			
3 어머니의 교육정도	*** .48	.03	1.00		
4 사회계층	*** -.45	-.11	-.65	1.00	
5 어머니의 부모교육참여 여부 및 참여형태	*** -.64	-.03	-.46	*** .54	1.00

\*\*\* P &lt; .001

이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D. 부모의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와 자녀교육관**

〈연구문제 4〉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 〈표 11〉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교육정도

와 사회계층간의 상관계수( $r=.73, P<.001$ )가 너무 커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중 한 변인인 아버지의 교육정도를 제외시키고 연령, 사회계층,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의 3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머니의 경우는 변인들 가운데 상관계수가 아주 큰 변인이 없으므로 연령, 어머니의 교육정도, 사회계층,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계층( $\beta=-.48$ ),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beta=-.20$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이들

〈표 10〉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령, 사회계층, 어머니의 부모교육참여 여부 및 참여형태의 중다회귀분석 (N=162)

독립변인	종속변인	아버지의 자녀교육관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연령		-1.5 ***	-.005 ***
사회계층		-.53 ***	-.48 **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4.06	-.20
R <sup>2</sup>		.41	

\*\*\* P < .01 \*\*\*\* P < .001

\* 명목측정변인은 가변수화(Dummy)하여 통계에 사용하였음.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부모역할 훈련(1), 학교나 기관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2), 참여하지 않음(3)

〈표 11〉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연령, 어머니의 교육정도, 사회계층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의 중다회귀분석 (N=162)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 $\beta$ )
연령		-1.23 **	-.005 **
어머니의 교육정도		4.98	.23
사회계층		-.27 ***	-.01 ***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10.85	-.53
R <sup>2</sup>		.46	

\*\*\* P < .01 \*\*\*\* P < .001

2개 변인의 설명력은 41%였다.

〈표 11〉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beta = -.53$ ), 어머니의 교육정도( $\beta = .2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이들 2개 변인의 설명력은 46%로 나타났다.

##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라 자녀교육관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배우자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24명(162쌍)으로, 그 중에는 전문적인 부모교육 즉 부모역할 훈련(P.E.T.)을 받은 어머니 32명과 아버지 1명, 그리고 학교,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부모교육 강의를 받은 어머니 36명과 아버지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 이원영(1983a)이 제작한 '자녀교육관 측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전반적으로 성인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전반적으로 성인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 정치적 혼란 속에서 60년대에 급속한 공업화를 경험하고, 유교문화권 속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 부모들이 자식에게 사회적 상승을 위해 입시경쟁에서 이기도록 지식위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중심적 교육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부모의 성과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연령이 많고 적음은 자녀교육관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변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아동중심적 경향의 교육관을 갖고 있었

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부모의 성,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교육정도, 사회계층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때 부모의 자녀교육관은 자연발생적이기 보다는 후천적 교육의 영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있어서 어머니가 전문적인 부모교육(부모역할 훈련)을 받을수록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해졌다는 Metz(1980) 및 Lally 와 Honig(1977)의 연구결과와,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보다 이해하게 되었다고 보고한 Lane, Elzey 와 Lewis(1971)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교육, 특히 전문적인 부모교육은 부모로 하여금 아동발달상의 문제를 보다 더 이해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 넓은 이해를 갖게 하기 때문에 부모로 하여금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아동중심적 교육관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에게 실시한 부모교육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갖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교육의 형태 중에서도 강의 중심으로 실시되어 소극적인 청취가 주를 이루는 일반적인 학교,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보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이 좀더 아동중심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3.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배우자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에서, 어머니가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그리고 좀더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은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가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우, 그 배우자인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와같은 결과는, 부모교육참여 효과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대상 주변의 가족에게까지 수평적 파급의 효과를 초래한다는 Boger, Kuipers, Cunningham과 Andrew(197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모교육 형태 중에서도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이 좀더 아동중심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는 앞서 밝힌 바 있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있어서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가 전문적일수록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가졌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부모교육에 있어서 사회활동으로 바쁜 아버지들이 형편상 부모교육에 참여가 어려운 경우, 어머니만의 적극적인 참여라도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연령, 교육정도, 사회계층,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계층( $\beta = -.48$ ),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beta = -.20$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이들 두개 변인의 설명력은 41%로 높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서 어머니가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아버지는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 $\beta = -.53$ ), 어머니의 교육정도( $\beta = -.23$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에 대한 이들 두개 변인의 설명력은 4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경우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서 어머니가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수록, 그리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중심적인 경향의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때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는 어머니 자신의 자녀교육관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아버지의 자녀교육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바쁜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들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가 부모교육에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버지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만의 부모교육 참여라도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모교육은 부모 모두에게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그 대상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30-40대 학부모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타 연령과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에게 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연구상의 여러가지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다 다룰 수 없었던 것을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자녀교육관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자녀교육관의 차이이지,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의 차이는 아니므로 앞으로는 양육행동까지 포함시켜 연구한다면 보다 확실한 부모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인,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참여형태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의 차이는 반드시 부모교육의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 즉, 부모교육에 참여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만큼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들에게 나타난 자녀교육관이 그들 부모들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기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좀더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때 어머니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확립을 위해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전문적인 부모교육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하류층 부모의 자녀교육관이 가장 성인중심적이었으므로 이들 하류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실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계몽아동연구소, "한국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부모와 가정교육」, 계몽교육

- 사리즈 1, 1988.
- 2) 김명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3) 김점식,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귀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4) 박영충, "유아교육기관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실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5) 박춘희, "한국인의 교육관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 6) 박찬수, "부모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7) 박혜정, 권경안, 권기욱,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연구 : 취학 전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85.
  - 8) 백운등, 「SAS 일반선형모형 분석」,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 1987.
  - 9) 손인수, 「한국인의 교육관」, 서울 : 문음사, 1980.
  - 10) 이교영, "학부모의 교육관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 11) 이기숙, "우리나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부모교육 프로그램 탐색」, 유아지도교실 2, 1985, pp. 73~89.
  - 12) 이기숙, 이은화, 이상금,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연구」, 논총 제36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 연구원, 1980.
  - 13) 이동원, 「현대사회의 부모의 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탐색, 유아지도교실 2, pp. 35~47, 1985.
  - 14) 이영애, "부모의 대인관 및 자녀교육관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15) 이원영,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a.
  - 16) 이원영, "현대 부모교육의 개념과 부모의 자녀교육관", 「부모교육 심포지움 1」, 한국어린이협회, 1983b.
  - 17) 이정희,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8) 정순복,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실학사, 1976.
  - 19) 조옥라,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의 역할", 「부모교육 프로그램탐색」, 유아지도교실 2, 1986, pp. 19~34.
  - 20) 최옥순, "유아원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21) 최현배, 「조선민족 갱생의 도」, 서울 : 문음사, 1985.
  - 22)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3, pp. 69~86.
  - 23) Boger, Kuipers, Cunningham, Andrews, "Maternal involvement in day care : a comparison of incentives", Michigan State Uni., 1974, pp. 8.
  - 24) C. H. Wolfgang, *Helping aressive and passive preschoolers throuhg play*, Columbus : A Bell, Howell Company, 1977, pp. 97.
  - 25) Dickie, J. R., Gerber, S. C., "Training in social competence : The effects on mother, father, and infants", *Child Development*, 51, 1980, pp. 1248~1251.
  - 26) D. P. Weikart, A. S. Epstein, L. Schweinhart and J. T. Bond, *The Ypsilantl preschool curriculum demdsiration project*, Ypailant : High / Scope Press, 1978.
  - 27) Evans, Ellis D., *Contemporary influenc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nd. ed.,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5, pp. 338.
  - 28) Evelyn, P., Jean, F., *Parent education : toward parental ompetence*, New York : Appleton-Centry Croft, 1971, pp. 7~12.
  - 29) Grotberg, E., *Integration of parent education into human service programs*, Parent education and public policy, Norwood, New Jersey : ABLEX, 1983.
  - 30) Honig, A. S., *Parent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N.Y. : NAEYC, 1975.



- 31) James R. Stabenau, "Schizophrenia : family's projective identification", *Am. J. of Psychiatry*, 130, 1, 1973, p. 19.
- 32) Jane Knitzer, "Parent involvement: The Elixir of change", *Planning for Action*, Dennis N. Mcfadden (Washington, D. C.;NAEYC), 1972, pp. 83~95.
- 33) Lally, J. R., Honing, A.S., *The family development research program*, In M.C. Day, R.K. Parker(Ed S.), Inc., 1977.
- 34) Margaret M. Conant, "Teachers and parents: changing roles and goals", *Childhood Education*, 48, No. 3, 1971, p. 114.
- 35) Metzl, M. N., "Teaching parents a strategy for enhancing infant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1, 1980, pp. 583~586.
- 36) Moore, Mckinley, "Parent Involvement / Control in Child Development Programs", *Planning for Action*, Dennis N. Mcfadden(Washington, d.c.; NAEYC, 1972, pp. 77~82.
- 37) R. E. Herron, Brain Sutton-Smith, *Child's play*(N. Y.;John Wiley, Sons. INC.), 1971, pp. 5~6.
- 38) Susan, W. Gray, "The child's first teacher", *Childhood Education*, 48, no. 3, 1971. p. 127.
- 39) Teresa Smith, *Parent and preschool*, (Ypsilant : The High / Scope Press), 1980, pp. 16.